

## 다우니제일교회 미주장신대에 후원금 1만 달러 전달



좌부터 이상명 총장,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목사, 미주장신 기획 및 대외협력처장 이명철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담임 안성복 목사는 지난 28일, 교회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교단 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를 방문해 신학교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교계와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행해진 후원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안성복 목사는 “이전에 비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 교육기관을 후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해 당회와 논의를 거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명 총장은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전례 없는 재난으로 교회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시

기에 받은 후원금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다. 본교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본교를 후원해 주신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부터 모든 캠퍼스 강의를 캔버스 기반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우니제일교회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금년 표어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가주 다우니 지역의 대표적 한인 교회다.

김동욱 기자

## 팀 켈러 목사 “코로나 이후, 교인은 늘고 헌금은 줄어들 것”

### 9/11과 비교하며 교회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 예측

미국 팀 켈러(Tim Keller) 목사가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들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 내에 프로그램이나 호화로운 방식들은 희생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은퇴목사인 그는 Q2020 버추얼 서밋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유례가 없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차원적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9/11(테러)에 가깝다”고도 말했다.

켈러 목사는 “기독교 단체들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9/11 테러 직후, 리디머 교회에 교인은 25%가 늘었고 헌금은

25%가 줄어 들었던 현상을 설명했다. 이것은 교회로 오는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는 급증했지만, 교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를 떠남으로 인해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회상했다.

켈러 목사는 “이것은 지금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필요와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뿐만 아니라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생각하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수십 개의 도시에 5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단체인 리디미 시티루시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혁신적 사고’와 ‘더 많은 교류와 대화’가 필요

하다고 봤으며 “교회들은 이 두 가지의 일을 1-2년 안에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시에나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응답자 중, 1/3 이상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응답자의 32%는 코로나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이 해고를 당하는 등 경제적 피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켈러 목사는 이 바이러스가 뉴욕 시에 비극을 더할 때마다 인간의 자금을 ‘겉먹게’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반면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20%가 더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일시적이다. 솔직히, 좋은 시기가 오면 사라져 버린



팀 켈러 목사.

다”며 “그러나 실제 10, 20%의 (말씀에 열린) 더 많은 귀들이 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켈러 목사는 “미국에 9/11

이 저질렀던 일들을 코로나가 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둠 가운데 ‘희망의 봉화(beacon of hope)’의 역할을 하도록 특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온라인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미자립교회도 후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주 지역 한인 미자립 교회 렌트비 후원을 위한 온라인 워십콘서트가 열린다.

원하트미니스트(대표 피터 박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5월 15일(금) 오후 7시(미 서부 시간, 한국 5월 16일(토)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Ruach 호흡"과 "One-heartTV"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콘서트 출연진으로는 원하트 워십팀을 비롯해 강 찬, 김브라이언, 정신호 목사 등 한국의 유명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한다. 메시지는 토렌스장로교회 고창현 목사가 전할 예정이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YouTube의 채팅창을 통해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할 수 있다. 또 콘서트 전,후에도 원하트미니스트리를 통해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에 동참할 수 있으며, 후원금 전액은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에 사용된다.

피터 박 목사는 "당신의 사례를 교회를 지키내기 위해 렌트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 미자립 교회 목사의 고백을 듣고 워십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콘서트를



#### 미주 한인 교회 돕기에 한국 찬양사역자들도 참여 원하트미니스트 워십콘서트 5월16일(금) 오후 7시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남가주 지역에서 음반 제작 및 찬양 집회, 공연기획, 경연대회 등 다양

한 문화사역으로 교계를 섬기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 대한 문의는 213-347-5080 김혜지 간사 혹은 myoneheartministry@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본 찬양 콘서트는 본지가 후원한다.

김동욱 기자

### CMF 선교원 5월 선교사 정기 예배



CMF 선교회 정기예배에서 설교하는 엄영민 목사

####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항상 함께 하셔"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2일, 5월 선교사 정기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가 설교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엄 목사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영광보다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

님을 본받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용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며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하심을 믿고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채형병 목사의 인도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따라 개인과 교회, 가정과 선교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CMF선교원에서는 크리스천 결혼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브르타 자녀교육, 코스타리카 단기선교 준비 중에 있다.

김동욱 기자

## 코로나 시대 부모, 사역자 위한 '자녀교육 세미나' 개최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세우기 원하는 부모, 사역자들을 위한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상 앱으로 진행되는 자녀교육 세미나는 미주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일시는 5월 5일(화)부터 26일(화)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미주 동부시간)이다.

세미나 커리큘럼은 ▷회복과 생명력 - 축복의 통로로 서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 세대의 비전과 직업 ▷스마트폰 시대 미디어 분별 과정, 중독 다스리기 등 자녀 양육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

들로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로는 조희창 목사가 나선다. 조 목사는 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과 다음 세대 사역을 전공하고 지난 22년간 '건강한 자녀'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 사역과 강의를 진행해왔다. 조 목사는 FEBC 극동방송 <크리스찬 문화읽기>, CGN TV <교육칼럼>, CTS TV <글로벌 신앙에세이>에 출연했으며 현재 뉴저지 한무리교회 교육목사로 사역 중이다.

이번에 ZOOM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조희창 목사는 "Zoom으로 여는 세미나는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집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참여하기에 이동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과 시간대만 맞으면 미주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점

ZOOM으로 만나는 자녀교육 세미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5월 5일~26일 매주 화요일 EST 10:00~11:30AM (4주간)

Session 1. 회복과 생명력 - 축복의 통로로 서기  
 Session 2.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 커뮤니케이션  
 Session 3.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Session 4. 스마트폰시대 미디어 분별과정, 중독 다스리기

회비: \$40

Zelle - wooltarius@gmail.com  
 PayPal - paypal.me/wooltari  
 Venmo - wooltarius

SPEAKER

조희창 목사

-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대표간사
- 한무리교회 교육목사
-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전공
- Gordon Conwell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
- FEBC 극동방송 <크리스찬문화읽기> CGN TV <교육칼럼> 방송
- CTS TV <글로벌신앙에세이> 방송

주최 및 문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

Now Enrolling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 코로나19 사태, 볼티모어 베델교회 이웃 사랑 나눔에 적극 동참

## 시니어 케어 패키지 전달, 마스크 기부, 작은 교회 돕기 특별헌금, 소수 민족 돕기



교회 주변 시니어들에게 전달할 케어 패키지 준비가 한창이다. ©베델교회



베델교회 사회봉사부는 교회 인근 소수민족인 미얀마 '친족'에 케어패키지 물품을 전달했다. ©베델교회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에 이웃을 향한 미주 한인교회들의 온정과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볼티모어에 소재한 베델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지난달 11일과 25일 두 차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들을 위한 케어 패키지(Care Package)를 전달했다. 베

델교회는 교회 내 시니어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밖, 이웃들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두 168 가정에 생필품과 음식을 전달했다.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 이웃들을 위한 케어 패키지 준비에 온 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됐다. 여성도 모임은 생필품 선정과 구입을 맡았고 영어권 청년들이 포장한

상자를 한어권 청년들이 배달했다.

목회자들은 오웬브라운, 룽우드와 같은 시니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패키지를 전달하면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따라 사람 간의 접촉은 최소화했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은 고스란히 전달됐다. 패키지를 받은 이웃

들은 어려운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교회의 손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베델교회는 또 지난번 하워드 카운티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마스크를 기부한데 이어, 26일 주일 예배 시에 매릴랜드 교회협의회를 통해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하는 등 사랑 실천에 앞

장서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미얀마 소수민족 '친'족 가정들을 찾아가 케어 패키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패키지를 전달 받은 이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신들을 찾아와 갖가지 생필품을 전달한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동욱 기자

## NCKPC 총회 내년으로 연기 결정



지난해 5월 진행된 NCKPC 제48회 정기총회 모습. ©NCKPC 홈페이지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장로교(PCUSA) 한인 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총회장 최병호 목사)가 올해 시기를 늦춰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정기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9일 기준으로 106만 명에 이른다.

NCKPC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원교회들의 재정적 어려움 또한 이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NCKPC 총회 또한 재정을 최대한의 긴축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NCKPC는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교회들을 돕고자 재난 후원금을 마련해 회원교회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재난 후원금의 절반 이상은 타민족 교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NCKPC는 “그 동안 총회의 경비 절감으로 얻은 여유자금과 NCKPC 산하 여성교회의 후원금으로 3만5000달러의 긴급 재난 후원금을 우선 조성했다”면서 “이 중 2만 달러는 미국장로교 산하 다른 코커스들에 속한 우리들보다 어려운 소수민족 교회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하고, 1만5000달러는 힘든 상황에 있는 NCKPC 회원교회들을 위

한 재난 후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후원금은 NCKPC에 가입된 교회 중 출석교인 50명 이하의 교회이면서 매 주일 헌금액이 평균 1500 달러 이하이고, 교단으로부터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한 교회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미노회의 총무 혹은 KPC(대회협의회) 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미국장로교는 올해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6월 19일과 26일, 27일 총 3일 일정으로 회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원 기자

## 북미주 한인CBMC, 온라인 이사회 열고 제14대 회장 선출

### 14대 회장·이사장은 배현규 현 수석 부회장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이하 KCBMC)가 24일 온라인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제 14대 회장 및 이사장에 현 배현규 수석 부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KCBMC는 차기 회장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차기 수석 부회장에는 한기덕 현 감사이사를 선출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KCBMC는 ZOOM 비디오 미팅을 통해 이사회를 진행했으며 13회기 4차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 29명의 제직 이사 중 27명이 참석해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4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재정 감사보고 및 재정 보고가 있었으며,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정관 개정에 관한 보고와 토의도 이뤄졌다. 정관 개정 투표는 오는 9월 이사회에서 갖는다.

KCBMC는 현직 수석 부회장을 다음 회기 회장으로 자동 추대하고 있다. 이에 14대 회장/이사장은 배현규 현 수석 부회장이 맡게 된다. 차기 수석 부회장에는 한기덕 감사이사가 뽑혔다. 14대 회장단 및 이사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KCBMC는 올해 열기로 했던 제25차 북미주 KCBMC 필라델피아 대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기, 내년 6월24일~2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원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인정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툰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2) 위로

# 위로의 Know-how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5**

## “아프리카 우간다 리라 지역 선교지를 다녀온 어느 목회자의 글”

지난 2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리라 지역에서 15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세현 선교사 사역지를 두분의 목회자가 다녀왔다. 현지인 훈련생들의 성경 훈련에 강사로 섬기고 사역지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필자를 포함한 선교 동역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추려 보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우리는 쇠뿔을 발라 지어진 김 선교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우리 둘을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으로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 참 고맙습니다. 소풍 바른 선교사 집보다 게스트룸이라 하니 은근히 기대했는데...! 우린 2인 1실 게스트 룸에 도착하고서부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방안은 전기도 없고 시끄러운 발전기로 조금 불빛을 보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빛으로 보이는 침대와 이불은 더럽고 냄새에 별레까지 기어 다녀서 입던 옷을 깔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아나카의 집회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혹은 걸어서 며칠을 걸려서 찾아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1박 2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출리라는 반군 지도자가 일어난 지역이라 다 전쟁터 같은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피신했다가 3년 전에 겨우 다시 세워진 마을이라며 마음 아파하는 김 선교사의 영혼사랑을 함께 느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울초 이곳에서 일어난 400여 명의 반군이 17명의 민간인들의 목을 베었다는 뉴스를 접한 뒤라 저는 김 선교사의 희생과 수고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실은 멀리 골목을 꺾어 돌아가는 곳에 있어서 밤에는 무서워 갈 수가 없었고 한 목사님은 나 몰래 바가지에 소변을 보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바가지로 양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얼마나 웃었는지. 물을 떠와서 방 안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 세미나인지라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전기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무릎 꿇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세미나 후 8개월간 가르친 이들에게 수료증을 전하고 부족어 성경과 영어 주석성경을 상으로 수여하는 일을 도우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떠나오려고 할 즈음에는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병든 아이와 가족을 데리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는 불쌍한 아나카 부족을 두고 떠나 올 때 우린 같이 미안한 맘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며 우리는 내년에 꼭 다시 와서 저 주민들과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에 열 시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아프리카 남녘의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춤추는 듯한 소리에 우린 무섭고 두려워서 숨죽인 채 듣고만 있다가 또 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련장에서 에이즈 걸린 여인을 위해서 축사와 치유기도를 해 주고 왔기 때문에 에이즈 공포도 함께 느꼈습니다. 미국 3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게스트 룸과 그 분위기가 생각나서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전기도 없는 곳의 불 꺼진 방에서 마주 보며 서로 여기보다 더 힘든 곳도 있다더라며 웃다가 우린 차라리 김 선교사 부부의 쇠뿔 집이 게스트하우스 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막자란 저도 이런 정도의 경험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린 교우들 선교 훈련시키려면 이곳으로 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7시에 우리를 픽업하러 온 김 선교사를 보고 우리는 마주 보면서 웃음만 터뜨렸습니다.

별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장단기 선교 사역자들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우리 교회들은 주안에서 한 마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중부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전등회사에 젊은 기사가 일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매우 성실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집 뒤뜰의 그 낡은 창고는 그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젊은 기사는 수시로 연구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의 아버지 농부였는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수 차례 그 낡은 창고를 헐어 버리겠다고 야단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젊은이가 쓸데없는 일로 허송세월한다.’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만은 남편의 일을 믿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난 믿어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아내의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석유 등불을 비추 주었고, 추운 겨울 밤에는 쪼뽏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 가면서도 그의 일을 도우며 격려했습니다.

때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습니다. 창 밖에서 그 젊은 기사가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끌지 않는데 굴러가는 네 바퀴 수레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안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입니다. 그가 자동차 왕으로 인정받은 후 어느 날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 아내와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너는 청력을 잃었지만, 아직 시력이 남아있다. 사람의 입술을 보고 말을 파악하는 독순술(讀唇術)을 익혀라. 그러면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녀는 독순술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는 물론 비올라 연주도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 엘리자베스 바를로입니다. 영국은 신체장애를 극복한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프랑크 상을 수여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가 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를 살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영국에 어려서부터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16세에 청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청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음악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고 힘들다. 그럴 때 노력과 의도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오랫동안 실패한 포드의 진정성을 아내가 알아주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이웃의 마음과 진정성을 알아주세요! 그것이 삶을 새롭게 하는 큰 위로요 격려입니다.

셋째 가능성을 응원하고 격려하라! 청력을 잃고 아연실색하는 엘리자베스 바를로에게 시력이 남아있음을 어머니가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은 바를로가 가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를로는 불구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 듭니다. 위로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행복과 위로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제 해결책을 함께 찾아라! 실패자는 현실적으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출구 찾기가 최상의 위로입니다. 실패의 해결책이 필요한데 당사자는 실패의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청력을 잃고 망연자실한 엘리자베스 바를로에게 어머니가 제시한 독순술이 돌파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주저앉아 있는 실패자를 찾아가 일으켜 객관적인 안목으로 탈출구를 찾아보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돌파구는 참된 위로요 희망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병원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위로가 풍성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병원의 치료약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위로를 먹고 삽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무한정 사랑과 위로는 자녀들의 힘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용납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위로가 필요한 부모들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힘입니다. 위로가 치료제입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김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랜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해외이사**

**문의 1-877-580-2424    시애틀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김요환 전도사, 본격 문제 제기 “동성애 지지자들, 감리교서 몰아낼 것”

“소수 친동성애 목소리, 다수처럼 비춰져 정말 다수인 복음적 신학생들에 용기 주어야 교단, ‘교리와 장정’ 에서 동성애 반대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결코 혼합될 수 없어”

기독교대한감리교(기감) 내 일각의 소위 ‘친동성애’ 흐름에 본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그 동안 기감 소속 교회들 대부분은 반동성애 등 전통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반해,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를 비롯한 일부에서 이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급진적 견해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감신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 구성 교회를 개척한 김요환 전도사는 2일 본지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퀴어신학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교단이 아니어야 한다”며 “감리교의 뿌리는 웨슬리 복

음주의다. 전통 감리교라면 순수 복음주의적 색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감리교 신학의 한 흐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며 “사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단에) 복음적 목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리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든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소수를 발견했다는 그는 그들이 타고난 소위 운



교단(기감) 내 일각의 친동성애 분위기에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김요환 전도사 ©영상 캡처

동권 학생들과 연대하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다수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했다. 김 전도사는 “침묵이 악을 키웠다. 그게 미덕인 줄 알고 신경쓰지 않으면 없어지겠지 했던 게 실수였다”며 “그래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다수인 복음적 신학생들이 (친동성애

적 목소리를 내는) 그들이 다수인 줄 알고 겁을 먹고 목소리를 안 낸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되지만 정확한 교리와 신앙을 바탕으로 잘못된 비진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복음과 교회, 성도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도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교단 내 친동성애 및 퀴어신학 지지자들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교단에서 몰아낼 것”이라며 “한국 감리교(기감)는 분명하게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퀴어신학 지지 목사들, 신학생들과 결코 감리교라는 한 지붕아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교단이 동성애를 수용하고 저 같은 웨슬리안 복음주의자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교단이 쇠신되어서 동성애 지지 목사들과 신학생들을 면직, 퇴학으로 처리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면돌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너무 극단적이다. 다양성을 갖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등과 같은 조언은 하지 말아달라. 때가 되었다.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그리스도와 바알은 결코 혼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국내 최대 이단’ 통일교, 최근 이름 바꿨다



독생녀 참여머님을 세워 새로운 섭리역사를 여셨습니다.

통일교 1대 교주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 씨는 2012년 문 씨가 사망한 이후 자신을 ‘독생녀’로 내세워 통일교를 장악해 오고 있다. ©통일교 유튜브 캡처

### 1일 ‘하늘부모님 교단’ 으로... 교계 주의와 분별 필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단으로 꼽히는 통일교가 최근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참여머님 특별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77억 인류를 품을 때까지 더 이상 통일교나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Heavenly Parents Church)’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영상은 지난 5일 게재되었으며, 통일교가 밝힌 공식적인 명칭 변경일은 4월 1일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통일교는 2010년 다양한 명칭을 ‘통일교’로 통합했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사용해왔다. 통일교가 이름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1대 교주인 문선명 씨의 아내 한학자 씨의 총재 체제를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한 씨와 아들 문형진, 문국진, 문형진 씨의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됐다. 한 씨가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독생녀’로 내세워 통일교를 장악했지만, 한 씨의 아들들과 일부 세력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7남 형진 씨가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 외에는 이단”이라며 한 씨를 상대로 후계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에 의하면 올해는 문선명 씨가 태어난 지 100주년, 한 씨의 출생 77주년, 문 씨와 한 씨가 소위 ‘천주성혼’을 맺은 60주년으로, ‘격동의 해’를 추구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9일에는 ‘하늘부모님 교단 시대 우리의 사명’이란 영상에서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를 위해 거칠게 밀어붙이고 전력투구를 해왔다”며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하늘 부모를 모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상식과 제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참여머님의 말씀 앞에 절대 걸리지 말라”며 ‘구원 섭리를 다시 펼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교리에 힘을 실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밝혀진 신천지의 규모는 30만여명으로 파악되지만, 통일교는 자신들의 신도 수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 “총신대에 ‘동성애자’ 뿐 아니라 ‘제2의 조주빈’도 있다”

### 고소당한 염안섭 원장, 커뮤니티 게시판 증거로 제시

최근 총신대학교 내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총신대 측에 의해 고소당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분명 존재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 이 문제를 알리는 저를 고소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염 원장을 고소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치 학교 안에 아주 많은 동성애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주장을 펼쳐왔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염 원장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총신대에는 LGBT(성소수자)뿐 아니라 BDSM(변태성욕자)도 존재한다”고 재차 주장하며, 그 근거로 에브리타임이라는 국내 최대 대학생 포털 커뮤니티를 제시했다. 가입자 수 442만 명의 에브리타임은 철저한 ‘학교 인증’과 익명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염 원장은 총신대 에브리타임에 들어가 보면 LGBT 게시판과 BDSM 게시판이 개설돼 있고, 그곳에 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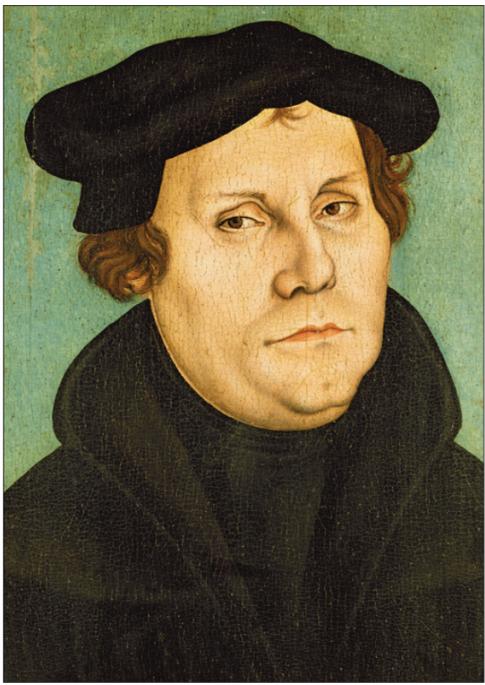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 초청 동성애 예방 교육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염안섭 원장

것이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민하는 글이나, 동성애자들의 은어를 사용하는 글들, 그리고 총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을 표방하는 ‘강종강총이 회원 모집을 하는 글들이 최근까지도 게시되고 있었다. 염 원장은 “이런 분들이 목사, 전도사가 되면 되겠느냐”며 “저 같이 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꾀박할 힘과 시간과 에너지로 총신대에 존재하는 제2의 n번방 조주빈을 잡아 달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li> <li>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li> <li>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li> <li>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li> <li>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 ATS 준회원</li> <li>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li> <li>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li> <li>목회학사 과정 신설</li> <li>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p>	<p><b>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b></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li> <li>- 100% 한국어</li> <li>- I-20 발급</li> <li>-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li> </ul>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ATS 정회원</li> <li>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li> <li>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CS 정회원 인준</li> <li>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li> <li>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GATEWAY SEMINARY</b>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b>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b>Azusa Pacific University</b>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b>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b> 입학문의 ☎T.(626)857-2200</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b>광고 및 후원 문의</b></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 (1)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영적 대각성운동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시대를 제외하고  
종교개혁 만큼 인류사에 깊고 광범한 영향을 끼친  
신앙운동은 드물 것이다.” -필립 샤프-

평범하고 소심했던 수도사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고 변질된 성경적 구원관과 카톨릭이 왜곡시킨 기독교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 놓았다.

루터는 1483년 프러시아(지금의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중산층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부친의 염원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다가 22살 때 함께 길가던 친구가 번개로 즉사하는 것을 보고 “성 안나시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약했다. 그 후 수도사가 되기 위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 금식, 절야 그리고 고해성사를 자학적인 만큼 많이 했지만 영적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곳에서 만난 스승 슈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 자학을 그치고 성경연구에 몰두했고 신학박사가 된 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눈을 자신의 죄에서 돌려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특히 로마서 1:17 말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핵심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통한 이 중요한 복음의 발견은 루터의 사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루터의 강의를 들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생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

당시 카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하고 일곱 가지 성례를 성실

히 행해야 한다고 왜곡된 구원관과 사제들의 중보적 역할, 성인 숭배 등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만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속죄를 위한 고행이나 사제들의 중보나 성인들을 통한 기도 등 카톨릭의 중보 신학과 모든 관습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 종교개혁의 봉화가 되었던 95개 조항

성경을 통해 발견한 루터의 구원관은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완공을 위해 전 유럽에 면죄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사실 그중의 많은 돈이 성직 매매를 위한 뇌물로 쓰였다).

당시 교황들은 가르치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면 죄책이 감소되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고 가르쳤다. 참된 구원의 복음을 성경에서 발견한 신학교 교수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과, 교황은 죄 용서에 대해 능력도 권위도 없음을 중심으로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다. 이런 관습은 번역 행위가 아니고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청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라틴어로 기록한 95개 조항은 루터의 허락도 없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구텐베르크 인쇄기 덕분에 순식간에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예상치 않았던 종교개혁의 봉화가 되어버렸고, 루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야 했다. 이 사건은 성경적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복음

의 부흥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로마 교황청은 발각 뒤 집했다. 당장 루터를 이단 죄목을 씌워 로마로 소환했지만 루터는 이에 대해 불응했고, 황제로부터 받은 파면장을 시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교황은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압박하여 루터를 보름스 제국 의회에 소환해 루터에게 그의 논제들을 철회하도록 압박했으나 “성경의 증언에 의해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있다” 고 선언하며 철회를 거부했다.

이에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파문함으로 루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루터의 보호자 작센의 군주 프리드리히가 위장 납치하여 바르트 부르크 성에 몰래 숨여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독일말로 신약성경을 번역한다. 몇 년 후 구약성경도 번역해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대량 인쇄되어 독일인의 손에 들려짐으로 종교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불길로 타오르게 된다.

####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신 개혁과 부흥의 정리

1. 성경연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개혁의 봉화를 들었다. 그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다.

2.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순식간에 50만 부나 팔렸는데 사제

들만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에 들려줌으로 종교개혁과 부흥의 불길을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번져가게 했다. 교회의 결정과 전통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성경의 권위를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세웠다.

3. 만인제사장론에 의거하여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사제의 일이나 일반적 직업이나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로 그 일을 통해 똑 같이 하나님을 섬김을 일깨워주었다.

4.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간 중보자(카톨릭 신부나 죽은 성자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배라고 가르치며, 단순하고 영적인 예배로 예배 개혁을 했다

5.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여 6남매를 키우며 개신교 성직자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루터는 평소에 매일 한 시간 기도하다가 종교개혁의 불이 붙자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씩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다. 비록 루터는 소심한 수도사였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루터를 통해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불길은 독일뿐 아니라 온 유럽으로 번져가게 하셨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루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대대적인 영적 추수를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부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자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대하 16:9).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소심하고 평범했던 루터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세계를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 기대된다.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장이로움을 갖추는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장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美 이중직 목회자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막막'



이중직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ixabay

## 남침례회 교단에만 2만2천여 교회 이상 치명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내 이중직 목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뱀티스트프레스가(BP)가 최근 보도했다.

지저스 갈라자(Jesus Galarza) 씨는 엘 파소와 멕시코 북부에서 배구 코치를 하며 사역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이중직 선교사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역과 코치 활동을 둘 다 그만두어야 했다.

텍사스 침례교 총회는 계약직인 갈라자 선교사의 월급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이중직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그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라자 선교사는 배구 코치로서 벌어들인 수입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축과 미 정부의 코로나19 재정 지원금을 이용할 계획이다.

그는 BP와의 인터뷰에서 "10월부터 코치일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침례회 교단에는 갈라자 선교사와 같은 이중직 목회자들이 많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위기 속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중직 및 소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네트워킹인 'Bivocial & Small Church

Leadership Network'가 주 정부를 통해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이중직 목회자가 이끌고 있는 남침례회 교회 수는 약 2만 2천에서 3만 5천 개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서튼에 위치한 레거시교회(Legacy Church)의 도널드 맥किन(Donald Mckinnan) 담임목사는, 주급 150달러 외에 뉴잉글랜드 총회와 한 지역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대리교사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으나 임시적으로 분류된 까닭에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맥किन 목사는 "아내가 장애인으로서 추가 보장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 가정의 주수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지는 않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조 라이트(Joe Wright) 상임이사는 B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2번째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교회는 목회자를 계속 고용하며 대체적으로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제2의 소득을 잃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회가 목회자의 이 같은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된다면, 그는 완전히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교회들은 이중직인 담임목사가 위태로운 위치에 처해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 트럼프 "코로나19 확산, 中 거액의 배상 책임 묻겠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27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미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이 피해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중국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배상금 1490억 유로(약 198조원)를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대중 수출 규제도 강화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자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 시 정부로부터 '균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과 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나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의 수출이 까다로워진다.

강혜진 기자

미 국립보건원(NH)은 24일 중국과의 협력으로 코로나19 연구를 진행하던 비영리 연구소 '에코헬스얼라이언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박쥐가 사람에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연구해 왔다.

미 정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70만 달러(약 46억 원)를 지원했으나, 올해 보 조금 중 아직 쓰이지 않은 37만 달러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구소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손잡은 일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내비쳤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코로나19를 고의로 만들었거나 유출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만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은 이날 대만 위생부장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평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청년부(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택함하며, 이방이민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측 주차)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민예배(소매방)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묘노가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신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주조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틀 MP제틀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경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예배 오전 7:30 수요일성경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imoldi St., Northridge, CA 91326 한인노년부 주일 오후 1:00  
T. (818) 939-5887 T. (818) 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년동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고,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예배 금요일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프랜시스 찬 목사 “코로나19... 교회는 더 열매 맺을 것”



프랜시스 찬 목사 ©YouTube/RZIM

## ‘Q 2020 가상 서밋’ 참석해 강연

프랜시스 찬 목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사용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처럼 교회를 다듬고 계신다”고 말했다.

26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Q 2020 가상 서밋’(Virtual Summit)에서 찬 목사가 전염병을 겪으면서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므로 죽음이 직면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없다”고 했다.

홍콩에 소재한 그의 자택에서 생중계 방송에서 찬 목사는 교회가 팬데믹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회가 진실되려면 관장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와 같다.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망치로 부순다면 그 다이아몬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짜라면 산산이 부서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모인 이 될 것이다. 바이러스나 정부, 경제, 생명이든 죽음이든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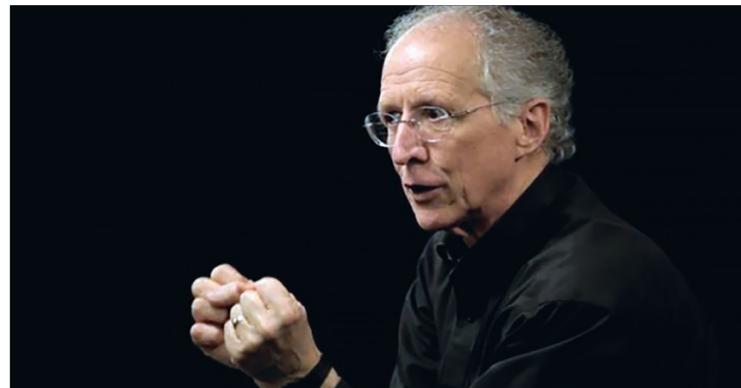
그는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한다. 교회는 관장을 것이다. 무엇이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 내시는 때”라며 “그러나 더 열매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 목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악의 일은 무엇인가? 사망이 있더라도 평생 갈망해온 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면서 “예수님은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후일에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이며 교회가 진정으로 통일되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변화를 신뢰하자”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미경 기자

# “간음한 목회자, 다시 사역할 수 있나?” 존 파이퍼의 대답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God.org

## 겸손히 상담·훈련받고, 다른 일 하면서 살아야...

미국의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esiringGod.org’에서 “간음을 저지른 목회자는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장기간 사육의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웹사이트의 팟캐스트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Ask Paster John)’ 코너에서 한 여성 청취자는 “우리 교회가 간음 문제로 이전 교회를 떠난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한다”면서 질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분은 간음하다 들켰고,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다. 저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간음을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목회사신서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비취를 때, 그분이 목회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분의 회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 좀 더 일반적으로 보자면, 과연 어떤 죄를 지을 때 종신적인 목사의 자격이 박탈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파이퍼 목사는 “종신적인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격이 박탈된 목사가 어떻게 다시 목사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교회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 기도하고, 속고하고, 연구하며,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 장로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한 사람이 개종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 지게 되는 간음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기 전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사역에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개종 이후의 간음은 그리스도 안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죄이다. 개종 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고, 본성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아내, 새 신자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명성을 깊이 배반함으로써 죄질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죄를 지은 이들을 사역의 자리로 빨리 돌려보내지 말라. 이전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겸손한 자세로 정기적인 교회의 상담과 훈련을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목사로 돌아온다면, 이는 장기간 공식적인 교회 사역 밖에서 새로운 삶을 겸손하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 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한인 주한미군 군목, 존 파이퍼 목사 신간 공유했다가 처벌 위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미 군인들의 모습. ©Jose M. Rondon 페이스북

한 주한미군 군목이 존 파이퍼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를 다른 군목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반기독교단체는 그를 법정에서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반기독교단체 미군종교자유재단(MRFF)은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 군목인 김 H. 문(Moon H. Kim) 대령이 이메일로 기독교 서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에게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MRFF에 따르면, 김 대령은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PDF 사본을 군의 공식 메일을 이용해 35명의 다른 군목들에게도 보냈다.

김 대령은 동료 군목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이 책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점검하고 힘있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들과 군인들, 그들의 가족들, 여러분이 섬기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RFF는 "김 대령의 메일을 받고 언짢아진 22명의 군목들을 대신한다"면서 "22명 중 상당수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매우 보수적, 개혁적, 복음주의적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LGBT(성소수자) 커뮤니티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파이퍼 목사는 책의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죄악된 태도와 행동을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코로나 바

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MRFF 설립자 미키 와인스타인(Mikey Weinstein)은 "김 대령의 이메일은 존 파이퍼 목사의 모든 책과 그가 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책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믿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와인스타인은 또 "김 대령은 그의 아래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냈다"면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미 국방부의 평등고용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 온 비영리단체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 마이크 베리(Mike Berry) 자문위원은 "김 대령은 이메일을 보낼 권리가 있다"면서 MRFF의 주장을 반박했다.

베리 의원은 "MRFF는 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에 참여한 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함으로써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근 미 의회도 반복적으로 군목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과 연방법도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군목(그리고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리버티연구소는 김 대령이 이메일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징계라도 받게 된다면, 무료로 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해진 기자

## 미국도 일부 주에서 현장예배 드리는 교회 늘어



아리조나주에 있는 챔피언교회가 지난 3일 주일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있다. ©Champion Church

미국 내에서 락다운 해제와 관련, 교회의 현장예배를 우선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주와 아이오와주 등 일부주에서는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유마시에 위치한 챔피언교회와 아이오와주의 트리니티 침례교회는 지난 3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축하했다. 챔피언교회는 애리조나주 정부가 지난 3월 31일에 주민 대의 명령을 내린 이후 6주 만에 가진 첫 예배였고 빈 자리가 많지 않은 수준으로 교인들이 모였다고 교회측은 전했다.

아리조나주의 경우 주지사가 '외출 자체 명령을 이달 15일까지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주 법무장관인 마크 브르노비치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필수적인 활동(essential activity)'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챔피언교회의 블룸필드 목사는 6주간의 격리 기간에 대해 '정화의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설교에서 "성경에서 40일, 40년은 종종 심판의 때이자 시험의 기간이었다"며 "그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 교회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기독교 지원 단체인 리버티 카운셀은 미국 전역에 교회들이 국가 기도 주간이 시작되는 3일부터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리버티 카운셀 설립자인 멧 스테바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며 "교회는 항상 필수적이었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던지 간에- 지금은 특히 어느 때보다 그렇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시행된 이후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드라이브 인 예배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았던 캔터키와 루이지애나 주의 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스테바 목사는 "교회들은 이런 명령들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다"며 "수천 건을 검토해본 결과 교회에 대한 이런 제재들 중에 어떤 것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뉴욕과 뉴저지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주들은 '락다운' 해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

김진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요예배 오후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열매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유·초등부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 오후 7시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새벽기도회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청년부 : 오후 2:0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요예배 오후 9:15,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li> <li>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li> </ul>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b>학사과정</b> (B.Th/B.A) 126학점</p>	<p><b>석사과정</b> (M.Div/M.A) 96학점</p>	<p><b>박사과정</b> (D.Min/Ph.D) 48학점</p>	<p><b>3월16일 개강</b></p> <p>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p>
---	---	--	--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국가기도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

미국의 국가기도의 날은 역사가 깊습니다. 1798년 존 아담스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전 국민이 하루를 정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시작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황폐화된 나라의 회복을 위해 1863년 4월 30일을 모든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52년 국가기도의 날을 연방 정부의 공식 기념일로 정했으며,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국가기도의 날은 모든 종교의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도의 날은 무신론자들에게 의해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타락을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가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나라를 붙잡고 여기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크고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베드로에게는 분명 철야기도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의 인생이 더 궤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새벽달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므로 철야 기도하는 것보다 열배, 백배, 천배도 더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요한의 다락

방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학문이 부족한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한 번에 3천명, 또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 미문의 앓은 뱀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기도하니까 작아지고 쉬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문제의 미국을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닌 기도가 생명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질병보다 크십니다. 삶의 절대기준인 말씀이 힘을 잃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가는 미국에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왕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미국 전역에서 울려 퍼진다면 마른 뼈들 같이 연약한 심령들도 여호와와 군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새바람도 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국가기도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정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교인들이 사업장을 닫고,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대책을 내놓고 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교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곧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몇 주 전에 유급 사역자들에게 지금은 괜찮지만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 몇 분 들은 일을 줄이고 그에 따라 사례를 줄여야하고, 그것도 힘들면 무급휴직을 할 수도 있음을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제 나름대로 불편한 마음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담임목사가 먼저 희생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부교역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고 어떻게 부교역자들 마음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냐'며 혼만 냈습니다. 아내 말이 백번 옳습니다.

평소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목사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눈치 보서는 안 되며, 적게 한다고 눈치 줘서도 안 되며, 헌금을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헌금을 못한다고 덜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말로 '나한테 하나? 하나님께 하지?'입니다. 물론 항상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과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성도 한 분이 몇 주분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보내오셨는데, 헌금봉투에 '교회에 힘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지 않기를 기도합니다!'고 적혀 있던군요. 그 기도제목을 보는데, 울컥 했습니다. 헌금은 먼저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또한 헌금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 봉투에 몇 월 몇 일, 혹시, 한 주라도 빠질까, 꼼꼼하게 주일헌금 날짜를 다 기록해서 문치로 보내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한 성도님이 저와 통화 중에 '목사님, 주보가 오면 가장 먼저 헌금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까 걱정되어서요. 헌금 내역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지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뿌듯할 정도로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으로 든든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교회 개척,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5)



성백승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회 개척 성공률은 10%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은 복음 전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대위임령(마 28:18-20)은 예수님의 부활 후 교회 개척의 당위성과 개척 사역이 조직해야 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어렵지만 개척에 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 전 개척 목사님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난다. 10명 남짓한 교회에 새신자가 찾아올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찾아 왔다면 그 분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6개월 이상 버틸 확률은 몇 %나 될까요? 대부분의 참석자가 5분 안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해답은 교회개척 5단계를 철저히 순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개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을 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한다. 잉태 준비 과정이 있으며, 출산 과정과 성장 성숙과정과 재생산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개척모델 (life cycle planting model)은 잉태, 준비, 탄생, 성장 성숙, 재생산의 다섯 단계가 있으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획단계

인 잉태단계와 준비단계를 가장 중요한 단계로 거듭 강조한다. 지난 번에 잉태와 준비 단계를 다루었고 이번에 탄생, 성장/성숙 단계를 다루도록 하겠다.

#### (1) 잉태 단계

잉태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 팀을 구성하는 것이며 개척 목회자의 영적은사는 개척을 올바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정직, 용기, 위험감수, 동기 부여, 종의 마음, 통찰력, 비전, 가치의 공유, 그리고 사명감 같은 것이 있으며 이러한 지도자의 영적은사들은 건강한 교회 성장과 긍정적인 팀 활력에 중요하다.

#### (2) 준비 단계

준비단계는 모교회가 본격적으로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성, 인적 자원 확보, 개척 장소 모교회와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모교회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대지 구입, 개척 목회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척과정의 소요 예상 비용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탄생 단계(설립)

교회분립을 준비하는 과정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이 실제로 교회를 분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마치 잉태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모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되는 교회를 두고 교회 출산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여기 출산의 과정이라고 묘사된 부분은 결국은 교회 창립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브리 말퍼스는 이러한 교회

의 창립이 과연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준비기간으로부터 창립에 이르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뜨거운 시작' 즉, 이미 모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되는 교회로 파송되는 핵심그룹이 준비되어서 기도 준비와 실제적인 창립 준비가 있었다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면 창립이 이루어 질 것이고, '차가운 시작' 즉,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교회라면 적어도 9개월에서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브리 말퍼스는 개척지역에서 교회의 핵심을 구성할 성도들을 구성하기까지는 설립예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모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준비된 멤버들이 핵심 그룹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 때에도 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교회 설립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설립 날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력에 있는 의미있는 날(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찬절)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척 학자들은 교회 설립 날짜로 피해야 할 날들로 연말연시나 혹은 너무 더운 여름날이나 너무 추운 겨울날을 피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은 개척 설립되는 지교회의 이름에 모교회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을 행정적, 재정적인 면들에 있어서 필저하게 모교회의 통제 하에 있기에 교회 명칭조차도 반드시 모교회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지교회와

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분립개척 교회이기에 여기서는 교회 명칭까지도 개척 목회자의 자율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회 설립 날짜 및 교회 명칭 결정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은 교회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위치는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개척의 기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교회들은 교회의 위치를 선정할 때 대로변 혹은 고속도로 주변을 선호한다.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넓은 길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위치는 가급적 청결한 곳이 좋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회개척이란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 구성할 핵심 성도들을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때, 교회 위치 선정의 문제가 교회 설립과 더불어 고려되는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예배당 건물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교회가 사용하게 될 건물이나 시설물에 과연 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교회 개척 설립이 준비되면 이제는 개척 설립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설립예배에 대하여 개척학자들은 "구도자 대상 그룹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그들은 예배의 의미와 지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결합된 예배의 형태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설립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당신의 초

대에 응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에 온 일반인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예배이다. 최초의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은 마치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교회와 함께 잘 계획된 교회 출범이 이루어지는 것은 향후 그 교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4) 성장/성숙단계

모델교회로서의 모교회로부터 분립 개척되어 출범한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성숙하여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경우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겠으나 오브리 말퍼스는 교회가 설립되고 성숙과정에 이르는 선을 성도 수 200명 선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명을 '200명 장벽'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 개척된 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인지 더욱 확장될 것인지를 200명 선을 돌파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기의 질적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교회들에게는 교회를 성숙케하는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브리 말퍼스는 이 시기의 질적 성장에 있어서의 목회자의 리더십에 관하여 "나는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들이 행정력의 유무에 상관 없이 교회를 성숙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현대교회는 목회자의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 성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학교  
 교미보고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연두리 통증(혈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 <요계벳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계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그대 이집트 왕들의 일반적 초침)가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 영아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던 때 히브리 여인 요계벳은 그의 아들 모세를 3개월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를 숨길수 없는 시점에 이르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출 2:3). <요계벳의 노래>라는 찬양은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계벳이 아마도 했을법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노래로 특히 그리스도인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이 사랑받는 곡입니다. 저도 이 노래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가사 일부를 아래에 적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실제로 요계벳이 위와 같은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1-10은 그에 대해 침묵합니다. 히브리서 11:23이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구체적 표현이나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거나 자녀들을 위험천만한 삶의 장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에게 이 곡이 큰 공명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돕고 싶어도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아직 우리 품 안에 머물러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4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또 아버지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이번 주일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요계벳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곡에 대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계벳의 노래>를 부르기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엡 6:4). 복음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그의 영이 이끄시는 변화와 성숙을 갈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COVID-19 사태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고난과 불편함의 연속 가운데서 맞게 되는 이번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이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부모들로 하여금 말씀교육의 비전을 회복하고 성경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하에서 우리가 <요계벳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한다한들 자녀들이 들겠습니까?

둘째, 부모는 자신이 가정 내의 절대 권위자가 아님을 생생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내의 절대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엡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특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적 존재입니다(6:4).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명령을 포함한 에베소서 6:4는 명령을 포함한 에베소서의 가정 규약(5:22-6:9)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의 표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5:21).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써 부모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바울 당시 헬라-로마 문화권에서 신생아를 유기하는 일과 낙태가 자행되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심한 매질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사도바울은 부모의 권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에 놓여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엡 5:21; 6:4).

셋째, 부모의 자녀양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 경험, 전통 혹은 자신의 생각, 아쉬움, 갈망이나 야망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My Way>라는 팝송을 좋아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나의 길(my way)이 아니라 주님의 길(the way of the Lord)을 좇아야 합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베소서 6:4에 걸쳐 ‘말씀’과 ‘복음’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부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기반한 변화와 성숙의 동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그에 대해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통해 비록 불안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시연(display) 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COVID-19의 위기 가운데 맞게 되는 이번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이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부모들로 하여금 말씀교육의 비전을 회복하고 성경교육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외면한 우리 현실이다. 우리의 내면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로테스크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한 폐와 같지 않겠는가. 인간의 오염과 파괴에 대해 자연은 인간이 한 만큼만 되갚아주는 일대일의 수치가 아닌 제곱수로 늘어난 재앙을 내리다 결국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인간에게 가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환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곳을 파괴할 때, 새로운 판데믹은 끊임없이 출현할 것이다. 인간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은 도처에 흩뿌려져 움트고 자라 가시덤불같이 뻗어나가 우리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목정발처럼 만들고 있다. 이 땅에 질게 드리워진 탐욕이 독성 바이러스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판데믹의 근원은 새로운 병원균이 아닌 탐욕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자.

우리 삶의 근간을 흐르는 아주 작은 생명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일갈하신다. 하나님 형상 회복만이 오고 오는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이다.

##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성원 목사

“아나네들과 새끼들이 한 집에 틀어박혀 무슨 수작들이야! 이것들이 수령님의 삼년 제사도 아직 멀었는데 벌써 죽은 수령님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닐 테고, 대체 무슨 짓들이야? 제사하는 것이면 제사상이라도 차리고 할 것이지 배고고 죽겠는데...”

그러자 일본 영화에 나오는 인형처럼 생긴 여자가 눈을 반짝 뜨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주도다. 재앙이로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화가 미쳤으니 마귀에 매어 주님 앞에서 악독한 말을 발설하는 저 입술을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당시 북한에서 가장 상스럽고 더러운 욕설은 ‘가룟 유다 같은 간나 새끼’와 ‘마귀 아들놈’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이 같은 욕설을 퍼부으면 당장에 주먹을 날리며 “개소리 말라”고 고함을 쳤을 것이다. 아나네의 말에 화가 치밀고 패심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인에게 주먹을 날릴 수도 없고, 친구를 찾는 목적도 있고 해서 억지로 분을 다스렸다. 하지만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어쩐지 무섭고 낯설어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순간 ‘아멘’이라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예수쟁이라면 사회주의의 가장 극악한 원수들이며, 미신으로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 아닌가. 이들은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유신론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보니 친구는 사회주의를 피로써 지킨다고 맹세한 동농촌경영위원회에 잠입한 종파 새끼며 반동 새끼였던 것이다.

하지만 남아야 차돌을 삶아 먹든 모래를 지어 먹든 무슨 상관이라. 그런데 요즘의 입이 불구대천의 간악한 원수인지라 참을성 없이 입질을 해댔다.

“이것들이 아버지 장군님의 가시 같은 은덕에 목이 매어 감사의 절을 올리는 건가, 뭐 하는 건가? 간나 새

끼들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반갑다는 인사는 못할말정 까투리새끼처럼 풍구멍에 머리를 처박고 웬 궁상이야?”

그런데 만화에 나오는 다람쥐같이 두 볼이 불거진 아나네도 입술을 놀리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나와 성정이 같은지 두 눈을 번쩍 뜨고 증오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비꼬듯이 말했다.

“야 저 입이 그나마 사람의 가족

이 덮고 있는 얼굴에 붙어 있으니 입인 줄 알지, 땅바닥에 그려졌으면 마귀의 주둥아리인 줄 알았겠구먼. 어찌 저 입은 열렸다면 더러운 냄새밖에 풍기지 않는 하수도 구멍과 일반이로구나.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더럽다고 하는 거구나야.”

아나네의 말도 나 못지않게 걸어서 들을수록 악이 반치게 만들었다. (계속)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수원교단), 주선영목사(신대 황해교구) 이동희목사(에스디교회), 송정영목사(복음선대 공동체목회), 권준호목사(주흥교회), 신정민목사(신대), 우원지목사(새생명교회), 김안식목사(CC공동체목회)	바실림 묘사 책의 권위자	영의 책은 아예 번역권을 주권할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림 외면하지 않았다'는 뛰어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사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세크도어명: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드온동죽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 VK마스크 시판

##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 판 매 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 성령으로 하나 되는 원리

에베소서 4:1-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에베소서 4:1-16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중략) ...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시어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교회에 목자를 세워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목자가 교회에서 진리정통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우리가 듣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면 우리가 구원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의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때부터 그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실 때,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제멋대로 살던 인생,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 자, 짐승만도 못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1. 소명 받은 자의 삶의 태도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교회에 목회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에베소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초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먼저 달랠까 안아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속삭이는 자식도 먼저 안아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모든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추면 많은 것이 우리에게로 담겨올 수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은혜의 법칙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 2. 교인에서 성도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나 온전치 못하기 전에는 죄인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교인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인이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이란 교회에 다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에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 집니다. 성도는 영어로 'Christian' 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인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죄 값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저주나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 받았기에 죄 값을 치를 이유도,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이유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천국소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며 순종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 3.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제각기 다 다른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회개도 안한 상태여서, 옛 생활, 옛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초신자들이 먼저 성숙된 성도들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초신자들을 안아주고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자신의 삶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교인에서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성도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제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기적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됩니다. 이는 우리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는 원수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어떤 잘못된 영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세우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인생이 지금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자신이 마귀 앞잡이 역할을 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합부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목자로 쓰임 받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서둘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교인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소망을 가꾸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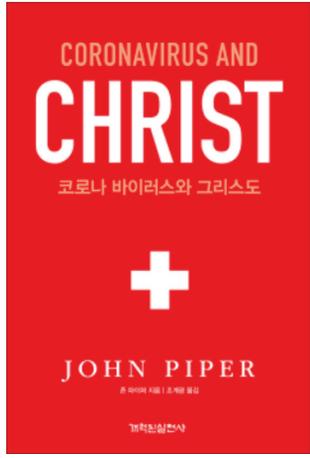
프로세서날-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존 파이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무료 전자책 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 조계광 역  
개혁된실천사 | 124쪽

코로나 바이러스  
다스리시는 하나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있다

존 파이퍼 목사(John Piper)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Coronavirus and Christ)>가 개혁된실천사를 통해 무료 전자책(e북)으로 출시됐다.

총 124쪽의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등 2부로 구성됐다.

존 파이퍼牧사는 “지금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음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서 있는가?’라고 문을 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102년 전인 1918년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는 5천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만 50만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끼고 저녁에 세상을 떠났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은 남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15년 전인 2005년, 자신의 암 진단 이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살든지 죽든지 함께하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것이 우리 발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라고 강조했다.

존 파이퍼牧사는 암 투병 후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아가페북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다.

파이퍼牧사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 위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크고 높게 솟아 있는 바위와 같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심을 아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해주실 뿐 아니라 좋거나 나

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롬 8:28)”고 했다.

이처럼 저자는 1부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2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며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점에서 헤아리기 어렵다(롬 11:33).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부 제목인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①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②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림 ③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④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⑤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⑥선교의 진전을 가져옴 등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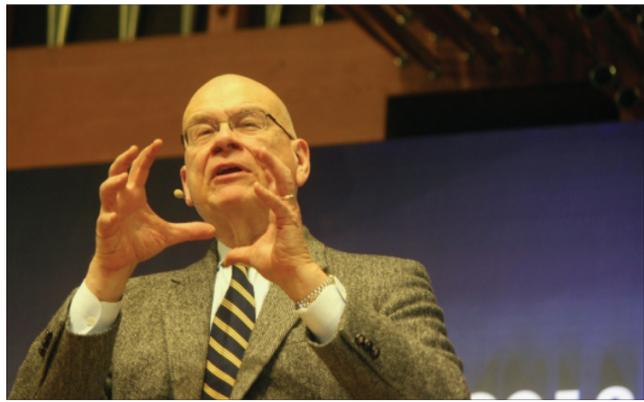
이대웅 기자



존 파이퍼 목사. ©더가스펠코얼리션 제공

#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부부 위한 365 묵상집으로 발간

신간 『팀 켈러, 결혼의 의미』



팀 켈러 목사(뉴욕 리더머장로교회 설립, CTC 이사장).

“성경은 사랑을 논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싶어하는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얼마나 기꺼이 주고 싶어 하는지로 사랑을 가능한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가? 내 자유를 얼마나 기꺼이 버릴 수 있는가? 내 소중한 시간, 감정, 자원을 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꺼이 쓸 수 있는가?’ 결혼 서약은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도 한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필독서로 꼽히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가 365일 묵상집으로 발간됐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이 책의 핵심내용을 부부가 매일 읽고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저자 팀 켈러는 결혼의 본질이 “언약”이라고 말한다. 남편과 아내가 삶의 모든 면에서 함께 하기로 약속한 맹세야말로 결혼의 핵심이라는 것. 법적, 재정적 면은 물론 영적

인 면까지 “삶 전체를 서로에게 준다”는 의미가, 결혼 언약 속에 담겨 있다. 이는 많은 현대인들이 결혼의 본질을 “로맨틱한 감정”이라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저자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중에서도 서로를 계속 한데 묶어주는 것이 결혼 서약”이라며, 이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 결혼 문화에 경종을 울린다.

또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형태로 “친구 관계”를 제시한다. 전통적인 결혼관은 부부의 부모 역할에 우선 순위를 매겼고, 현대 결혼관은 애정 어린 관계를 중히 여기지만,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여야 한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친구로서의 부부를 묶는 고리는 “영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우정”이다. 즉 부부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 가정에 행복은 절로 따라오지만, 행복만 추구한다면 거룩함도 행복도 모두 상실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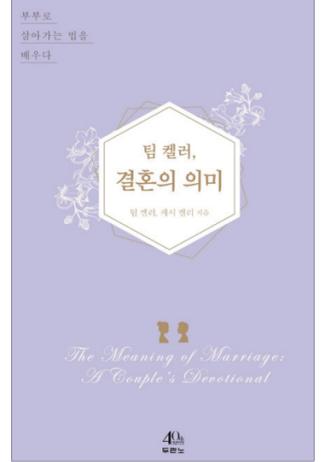
로 살펴본다. 12개 주제는 ‘결혼과 창조, 간음 예방하기, ‘이혼’,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서로 화해할 것인가’ 등이다.

매달 첫 주에는 주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 성경 가르침의 한 측면을 묵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 다음 생각해 볼 질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관한 짚막한 기도문,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제시한다. 첫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성경 구절 대신,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문을 연다.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활용하기 좋다. 부부는 물론, 예비 부부에게도 성경적 결혼관을 학습하기에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팀 켈러는 미 뉴욕 리더머장로교회 설립자이자 은퇴 목사이다. 저서로는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성경공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등이 있다. 현대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민선 기자



팀 켈러, 결혼의 의미  
팀 켈러 · 캐시 켈러 저  
오현미 역  
두란노 | 404쪽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관계는 없다.



GOD FIRST SINCE 1899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